

원재료값 내려도 외식물가는 ‘高高’



김밥 9.3%



라면 5.5%



소주 5.5%



맥주 2%



치킨 0.6%

3월 전년보다 2.3%올라

25개월째 2%대 상승

한우값 등 등락에도 요지부동

한 번 오르면 좀처럼 내려올 줄 모르는 외식물가가 실제 최근 1년새 하락 없이 오르거나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 원재료 가격은 등락을 반복하거나 하락하고 있어 불공정 가격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외식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3% 올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폭(2.2%)을 웃돌았다. 소비자물가가 0%대에 머물렀던 지난 2015년에도 외식물가는 2%대 중반을 꾸준히 기록했으며 2015년 2월(1.6%) 이후에는 25개월 동안 2%대 아래로 내

려간 적이 없었다.

품목별로 보면 외식물가의 오름세는 더욱 명확하다. 통계청이 조사한 39개 외식 품목의 경우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동안 전년동월대비 오르거나 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식 품목 중 최근 1년새 물가가 하락한 것은 지난해 7월 0.3% 하락을 기록한 국산차(茶)가 유일하다.

특히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한 것은 김밥이다. 지난해 김밥 물가는 1년전보다 9.3%나 뛰었다. 지난해 3월 3.5%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2.7배 차이가 난다. 지난해 보통 2000원선에 팔리던 김밥 한 줄이 최근에는 2500원에 팔리고 있다.

최근 상품가격이 인상된 품목들도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가격이 꾸준히 기록했으며 2015년 2월(1.6%) 이후에는 25개월 동안 2%대 아래로 내

려간 적이 없었다. 최근 가격 인상 논란이 불거진 치킨의 경우 1년 전보다 0.6% 물가가 올랐다.

조류 인플루엔자(AD)와 구제역 파동을 겪은 육류도 모두 2%대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물가가 2.0% 상승했으며 삼겹살은 2.4%, 오리고기는 0.9% 올랐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외식물가와 달리 원재료 가격은 이와 다른 방향이어서 불공정 가격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2015년 10월(12.1%) 이후 두 자릿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국산 쇠고기는 지난해 11월부터 물가상승폭이 한자릿수로 떨어진 데 이어 지난해에는 1.7% 상승한 데 그쳐 외식물가보다 낮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돼지고기 삼겹살 역시 지난 1월 100g

당 평균 2060원에서 2월 2130원으로 전월대비 3.4% 올랐으나 3월 들어 2084원으로 전월보다 2.2% 하락했다.

원재료의 경우 하락하거나 등락을 반복하지만 외식물가만큼은 요지부동인 셈이다. 이는 외식물가의 경우 원재료와 임대료 등의 가격이 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외식은 사실 서비스로 분류돼서 재료비 외에도 가격결정에 인건비나 건물 임대료 등이 포함된다”며 “재료비 같은 경우 농축산물이나 가공식품 가격이 등락을 반복함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지만 인건비나 임대료는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최근 1~2년새 외식물가가 2%대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다음달까지 전국 11만가구 분양

이달 초 긴 연휴를 지나 9일 대선이 끝나고 나면 아파트 분양시장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현재 미분양 아파트 수가 6만가구를 넘어선 가운데 5월 한 달 동안 6만가구, 6월에도 5만여가구에 달하는 신규 분양이 쏟아져 주택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3일 건설업계와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아파트 분양시장의 분위기가 올해 분양시장의 향배를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특히 중도금 대출이 막힌 가운데 10만 가구 넘는 분양물량이 미분양 폭탄이 될지, 청약 열기를 확산하는 기폭제가 될지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이달에 분양 예정인 전국의 아파트는 올해 월간 최대 물량인 5만9680여가구에 육박한다. 5~6월 두달간 분양물량만 무려 11만가구를 넘는 다.

분양을 대거 대선 이후로 미루면서 이달에 계획 물량이 한꺼번에 몰린 것이다.

3월 초까지만 해도 4월에 6만여가구를 분양하겠다는 건설사들이 국민적 관심이 대선에 쏠리자 5월 이후로 연기하는 바람에 지난해 실제 분양물량은 3월(3만3000여가구)보다도 적은 2만여가구에 그쳤다. 물론 5월 분양 예정 물량도 모두 실제 계획대로 청약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청약 시장 분위기에 따라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4만5410가구로 전체 분양물량의 76%가 집중된다. 특히 경기도가 3만3103가구로 압도적이다.

6월 분양 예정물량도 5월 못지않다. 비수기인 7~8월을 피하기 위해 상반기 안에 분양을 마치려는 건설사들이 몰리며 5만1000여가구가 계획돼 있다. 5~6월 두달간 분양물량만 무려 11만가구를 넘는 다. /연합뉴스

지역 中企 1313만달러 수출 상담

무역협 베트남 식품박람회...김가루 등 130만달러 계약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주동필)가 베트남 국제식품박람회(베트남 지역 농수산물 수출 교두보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베트남 시장은 한류 확산, 국내기업 진출과 교민인구 확대로 한국산 식품 수출이 매년 늘고 있는 동남아시아 시장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는 전남도와 함께 지난달 27일까지 3일간 열린 '2017년 베트남 호치민 국제식품박람회'에서 전남 지역 우수 수출 중소기업 8개사의 성공적인 참가를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9회째를 맞은 베트남 최대의 호치민 식품박람회는 38개국에서 614개 업체와 1만2842명의 바이어가 참가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이번 박람회에서 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는 전남지역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통해 수출상담 97건에 1313만 달러의 상담 성과를 거뒀다.

전남산 농수산식품의 우수성을 확인하는 즉시 현장 수출계약도 이뤄졌다. 해농식품은 조미 김가루 80만불을, 그린가운은 팽이버섯 50만 달러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김대성기자bigkim@

빛 연대보증 역사 속으로

올 마지막 사각지대 대부업 폐지 추진...법안 발의도 잇따라

올해는 정부가 마지막으로 남은 '사각지대'인 대부업 연대보증 폐지를 추진한다. 대부업체는 9000개에 이르지만 지금은 대형 대부업체 33곳만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행정지도나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모든 대부업체의 연대보증을 전면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대선 주자도 연대보증 완전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놓으며 힘을 싣고 있다. 금융권의 연대보증이 이르면 올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연대보증은 돈을 빌린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대신 갚을 사람을 정해놓는 제도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약속된 대출 만기일에 빚을 갚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와 똑같이 지금 의무를 지게 된다.

빛보증으로 전 재산을 잃는 피해자가 속출하자 정부는 2012년 은행권, 2013년

제2금융권에서 제3자 연대보증제를 폐지했다. 하지만 저소득층에 자금공급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로 대부업 연대보증 폐지는 자율에 맡겨왔다.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합법적으로 등록하고 영업하는 대부업체(대부중개업자 포함)는 8980곳이다. 이 중 대형 대부업체 33곳만이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대부업 연대보증도 일괄 폐지하기로 한 것은 일부 대부업체가 연대보증의 위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청년층을 보증인으로 세워 대출받도록 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테스토프스(TF)를 만들어 대부업 연대보증 폐지의 방식과 예외 조항 등을 논의하고 있다.

금감원은 법 개정보다는 행정지도를 통해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 QLED TV 인도 런칭

삼성전자 모델들이 지난 2일(현지시각) 인도 델리에서 열린 'QLED TV 런칭 이벤트'에서 'QLED TV'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모델들이 지난 2일(현지시각) 인도 델리에서 열린 'QLED TV

런칭 이벤트'에서 'QLED TV'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금호타이어, 구매 고객에 사은품

금호타이어는 5일부터 7월8일까지 프리미엄 고성능 타이어 '마제스티 솔루스(Majesty SOLUS)'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품 증정 이벤트를 실시한다.

마제스티 솔루스 4개 구매 고객은 정관장 '홍삼 정화액', 리엔케이 화장품 세트(남·여 선택), 아오도어 브랜드 몽벨의 바람막이 자켓(남·여 선택) 중 하나를 선택해 제공받을 수 있다.

마제스티 솔루스는 금호타이어의 창립 50주년 기념작으로 2010년 출시돼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고성능 타이어시장에서 큰 인기를 유지하며 스테디셀러로 자리잡고 있다.

금호타이어 최고의 기술력을 집약해 개발한 최상급 모델로 프리미엄 세단에 적합한 승차감과 정숙성, 안정성을 제공한

다. 자체 성능 평가 결과에서도 승차감, 소음, 제동, 마모 등 전 부문에서 기존 제품 대비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제스티 솔루스는 16인치부터 20인치까지 50여개 규격의 폭넓은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준중형·중형 세단부터 제네시스 G80이나 에쿠스 EQ900 같은 대형 세단은 물론, 벤츠와 BMW를 비롯한 다양한 브랜드의 수입 세단에도 장착이 가능하다.

손석승 금호타이어 RE영업전략팀장은 "최고급 프리미엄 제품인 마제스티 솔루스에 걸맞은 고급 사은품을 준비해 소비자 성원에 보답하고자 했다"며 "타이어 체크를 통해 안전한 여가활동을 즐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

경주일보 65 since 1952

아시아생태문화 중심 순천

순천공업고등학교

SK텔레콤비즈니스센터 (주)광주텔레콤

순천평화병원

순천광양축산업협동조합

전남농업협동조합

주한수자원공사

순천종합농성채

순천의료원

순천교육지원청

순천제일대학교

순천대진학교

순천시의회

순천시